

“김광현 볼, 중간에 사라지더라”...팀 동료 감탄

김광현, 웨인라이트, 폴 데용과 최근 합동훈련 시작

팀 동료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을 타석에서 처음 상대한 내야수 폴트 윈(30)이 “볼이 중간에 사라지더라”며 감탄했다. 미국 언론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4일(한국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시즌 개막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홈구장 부시스타디움에서 소규모 합동훈련에 나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선수들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빅리그 첫 도전에 나선 김광현도

포함됐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귀국 없이 동료 투수 야담 웨인라이트와 캐치볼 등 훈련으로 시간을 보낸 김광현은 최근 홈구장 부시스타디움 훈련시설이 열리자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 현재 부시스타디움에는 김광현과 웨인라이트, 폴트 윈, 폴 데용이 함께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김광현은 윈과 데용

을 상대로 피칭을 선보였다. 그리고 윈은 “실제 타석에서 김광현의 피칭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좋은 커브와 슬라이더를 지녔다. 공이 중간에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광현은 존의 구석 구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다. 지난 스프링캠프 자몽리그(그래이프루프리그)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투수 중 한 명”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800만 달러에 계약한 김광현은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전까지 열린 시범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바 있다.



1골이 목마른 광주 ‘4전5기’ 첫 승 도전

오는 7일 수원 원정...상대도 1승1무2패 초반 부진 해볼만

광주FC와 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대구 FC, 리그를 대표하는 시민구단들이자 2020시즌 가장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는 클럽들이다. 4라운드까지 마친 ‘하나원큐 K리그1 2020’에서 언급한 3팀은 최하위인 12위(광주)와 11위(인천) 그리고 9위(대구)에 머물고 있다. 부산이 10위에 끼어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민구단 3팀이 가장 좋지 않다. 특히 무디고 무딘 공격력이 문제다. 4경기를 통틀어 1~2골을 넣는 것에 그쳤으니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던 내용이다. 더 물러설 곳 없는 시민구단 삼총사가 배수진으로, 그래도 5라운드는 해볼 만한 상대라는 자신감으로 주말 일정을 기다리고 있

다. 3무1패 승점 1점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광주FC는 오는 7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2020’ 5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창단 10주년이 되는 올해 1부로 복귀한 광주는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개막전부터 3라운드까지 1골도 넣지 못한 채 3연패를 당했다. 지난해 2부리그 정상에 오르면서 가장 밸런스가 좋다고 평가됐던 광주였기에 충격이 제법 컸다. 때문에 우승후보 울산 현대와의 4라운드 결과는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광주는 지난달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4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기며 무득점과 무승점 터널을 빠져나왔다. 임원상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했고 경기 막판에는 역전 위기에 몰리는 등 내용적으로는 다 웃을 수 없었으나 전북 현대와 우승을 다툴 강호를 상대로 첫 승점을 따내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

가장 고무적인 건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과 함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집중 견제를 받는 펠리페의 헌신적인 연계플레이 속에 부상 복귀한 임원상의 측면 공격이 주효하며 공격에 활기를 찾았다. 이 흐름 속에서 수원전은 승부를 걸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수원의 상황도 좋지 않다. 개막 후 1승1무2패 승점 4점으로 8위에 머물고 있는데, 수원 역시 4경기에서 3골에 그칠 정도로 공격력이 빈약하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승격팀 부산과 0-0으로 비겼다. 광주로서도 도전해 볼만한 상대다.



고진영 이것이 세계 1위의 샷 ' 여자 프로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이 4일 제주 서귀포 롯데 스카이힐 제주CC에서 열린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1라운드 2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개막 ‘여전히 불투명’

사무국, 선수노조 114경기 역제안 거부...연봉 삭감 관련 진통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역으로 제안한 114경기 정규시즌 진행안에 대해 사무국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켄 로젠탈 기자는 4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사무국이 선수노조가 제안한 시즌을 114경기 치르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무국 차원의 다른 제안도 없을 것”이라며 “양 측의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시즌 개막이 미뤄지고 있는 메이저리그는 현재 단축시즌이라도 개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연봉 관련 사무국과 선수노조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사무국은 7월 개막, 82경기 단축 일정 소화 등을 제안하면서 미미 합의한 선수 임금안 수정 의사까지 밝혔다. 시즌이 개막된다 해도 무관중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밖에 없고 이

에 따른 추가 임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수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사무국은 선수 임금 차등지급을 새로운 안으로 제시했는데 역시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선수노조는 시즌 일정을 114경기로 늘리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경기수를 조금이라도 늘려 줄어든 수익을 중계료로 메워보자는 취지인데 사무국은 반대 의사를 전한 것이다. 구단들은 일정이 늘어지면 11월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어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자칫 정규시즌보다 흥행이 더 되는 포스트시즌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같은 강경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은 추가 임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경기 안팎만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KBO, 2022년엔 ‘로봇 심판’ 등장

올 8월 퓨처스리그 도입...판정 논란 사라질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로봇 심판을 8월 퓨처스리그에 도입한다. KBO 측은 4일 “로봇 심판을 8월 퓨처스리그 경기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느 구장에서 먼저 시작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BO는 일단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20경기 정도를 로봇 심판으로 치른 후, 내년 시즌에는 퓨처스리그 전 경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군 경기 도입은 2022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KBO는 지난 2월 로봇 심판 시범운영 대행 업체 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업체 선정은 마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8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KBO가 도입하는 로봇 심판은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투구 궤적 시스템이다. 로봇 심판을 통해 볼과 스트라이크가 결정되면 구심이 이를 전달받아 판정을 내린다.

로봇 심판은 세계적인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차질이 생겼을뿐, 메이저리그(MLB)도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 로봇 심판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에리조나 가을 교육리그에서 이미 로봇 심판이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로봇 심판이 도입되면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따른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 시즌 한화 이글스 이용규가 공개적으로 심판의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로봇 심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허은 KBO 심판위원장도 로봇 심판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은 위원장은 “로봇 심판이 도입돼도 심판들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심판들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NBA 8월1일 재개”...오늘 최종 승인 절차

미국프로농구(NBA)가 8월1일 재개를 사실상 확정했다. 미국 ESPN은 4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NBA 이사회가 리그 8월1일 재개와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2019-20 NBA는 오는 8월1일 재개되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디즈니월드에서만 열린다. 팀별 8경기씩 소화하며 이후 플레이오프 일정을 갖는다. 일정 상 챔피언결정전이 7월27일까지 열린다고 감안해도 10월13일에는 시즌이 마무리될 수 있다. 전체 30개팀 중 22개팀만 참가하는 조

22팀만 참가, 10월13일 종료 올랜드 디즈니월드서 개최 골스 등 하위 8팀 시즌 마감 간이 달렸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동부 콘퍼런스 8개 팀, 서부 콘퍼런스 8개팀에 이들과 승차가 6경기 이내에 포함된 하위권 6개팀만이 잔여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위권인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뉴욕 닉스, 시카고 불스 등 8개팀은 그대로 시즌을 마치게 됐다.

구단별 7월부터는 훈련이 가능하며 모든 경기는 디즈니 월드 안에 있는 ESPN 월드 오브 스포츠플렉스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대형 리조트인 디즈니 월드 안에는 숙소, 편의시설이 마련 돼 있어 대규모 인원이 이동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구 코트도 3개면이나 있어 한 번에 여러 경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재개 이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사회의 이번 계획안은 오는 5일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큰 변수가 없다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경 복귀...배구판 너무 뻘해질라”

타 팀 감독들, 환영보다 우려

김연경(32)의 복귀를 바라보는 여자 프로배구 사령관들은 환영보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4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베르사이 유혈에서 열린 '2020 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자리에서는 외국인 선수 선발보다 김연경의 한국행 가능성이 더 큰 이슈가 됐다.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은 “일시적 불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김연경의 합류로 뻘한 경기가 될 수 있다. 전력적인 부분에서 너무 편중화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도 비슷한 입장이

였다. 이 감독은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를 포함한 외국인선수를 다 합쳐도 그 이상의 기량을 갖겠다”고 높이 평가한 뒤 “안 그래도 이재영과 이다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한 팀인데, 다른 5개 팀은 모두 도전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감독은 “새로운 팀이 창단할 때 김연경이 복귀하면 배구 발전에 참 좋을 텐데 아쉬운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터키 프로배구 여자시비시와 2년 계약이 끝난 김연경은 다양한 팀을 놓고서 이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복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V리그 행이 급물살을 타